

북방교역의 거점도시로 부상하는 동해시 남북교류 협력에 동해 지역 인프라 활용 건의



심규언 동해시장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해 동해·묵호항을 비롯한 강원도 유일의 경제특구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동해자유무역 지역 등의 인프라를 남북교류 협력계획에 반영하고 활용해 줄 것을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시대가 예고되고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해시는 강원도의 해상관문 도시로 북한의 자원을 반입하여 각종 경제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강원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과 동해안의 하나뿐인 자유무역지역을 보유한 도시다. 현재 북평 제2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고, 러시아·일본·북한 수역의 수산물을 반입·가공해 수출하는 콜드체인 표준공장도 내년 12월에 준공한다. 지난 8월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추진과 관련한 연계사업으로 △ 북한광물자원 활용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북한 수산물 활용 환동해권 콜드체인 구축사업 활성화 △ 남북 필드하키팀 공동 전지훈련 등 3개 사업을 강원도에 제출해 반영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 미래첨단산업 회토류 거래소 설립 △ 제2 쇠빙선 모항 유치와 북극센터 설치 △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북한 광물자원 전용 선석 확보 △ 나진항·동해항 정기 물류 항로 개설 등 4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강원도에 제출하는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동해시 기반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해시는 2021년까지 1조6천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동해항



3단계 개발이 본격화되고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 국가와의 교류 또한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해·묵호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동안 북방 국가와의 교류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 북방교역의 중요 거점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동해시는 지난 5월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에서 열린 '한-러 극동포럼'에 최기준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장을 포함한 총 8명의 대표단을 파견해 현지 물류 업체 및 관계기관, 선사 대표들과 만나 비즈니스 채널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통해 향상될 화물 처리 능력, 진입도로와 인입 철도 등 배후 연계 수송망 확충과 같은 동해시의 항만 인프라와 통관 절차 간소화, 세금 할인 등 인센티브 혜택을 홍보해 관계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 시 관계자는 "남북 교류사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소모적 경쟁을 피하고 동해안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교류사업을 추진해 상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해시는 추진 가능한 남북 교류사업을 지속 발굴해 본격적 교류협력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 환동해권 북방교역 중심도시로 각인"
"지금까지 환동해 거점도시 경제교류협력은 관 주도 의 회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민간 경제단체가 활발히 교류·상생·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동발전을 이루는 실천적 모델이 될 것이다."

지난 8월 한국·일본·중국 등 4개국 11개 회원도시 대표가 참석한 제24차 환동해 거점 도시회의에서 심규언 동해시장이 밝힌 폐막 소감이다. 중국 훈춘시에서 열린 이 회의에는 동해, 속초, 포항, 러시아 핫산,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옌지, 훈춘, 도문, 일본 사카미미나토, 요나고, 돗토리 등 11개 회원도시 대표가 참석했다. 심 시장은 이 자리에서 "환동해권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교류협력 발전의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동해시가 환동해권 북방교역의 중심도시라는 인식을 회원도시에 각인시킬 수 있었던 것도 성과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환동해권에서 유일하게 한-러-일 3개국을 정기 운항하는 DBS크루즈의 항로 확대 개설과 2016년 설립한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를 통한 환동해권의 물류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회원도시 간 물동량 교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한 내용은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북미 정상회담과 남한과 북한의 유례없는 평화 모드 등 대립의 시대에서 화해의 시대로 전환되면서 동북아 지역 발전의 큰 전환점이 도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 시장은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에 매장돼 있는 엄청난 양의 자원과 한국과 일본이 보유한 자본과 세계적인 기술력이 어우러지면 우리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동해 경제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북한의 개혁·개방 흐름은 동북아 지역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는 만큼 동해항을 거점으로 한 북방교류 협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답답한 일상에서의 탈출

소중한 자아를 동해시에서 재발견하세요!



무릉계곡